

삼성DP, 듀얼뷰 OLED TV 공개

1대로 2개 풀HD 콘텐츠 구현 ... SEAV에 SG방식으로 선명도 높아

삼성디스플레이가 TV 1대로 2대 효과를 내는 <듀얼뷰> 기능을 탑재한 OLED TV를 공개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0월9일-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 <IMID 2012>에서 해당 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듀얼뷰(Dual View)는 1대 TV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풀HD 콘텐츠를 동시에 구현하는 삼성의 특화 기술로, 차세대 TV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기능을 이용하면 야구 중계를 즐기고 싶은 남편과 드라마를 보고 싶은 아내가 이어폰이 달린 안경을 통해 한 화면으로 서로 다른 영상에 스테레오 사운드까지 즐길 수 있다.

또 동시발광구동(SEAV) 기술과 셔터글라스(SG) 방식을 결합해 선명하고 어지럼증 없는 3D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 OLED는 컬러필터가 필요 없고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색을 내기 때문에 <듀얼뷰> 기능에서도 한층 더 생생한 색감의 영상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OLED TV는 연말 양산을 앞두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2 등 모바일제품을 위한 OLED 라인업과 75인치 슬림베젤 3D TV, 21.6인치 정사각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 LCD(Liquid Crystal Display)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IMID 2012> 전시회에는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독일 등 6개국 85사가 240부스를 마련해 참여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8>